

안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전파에 최선

홍석하 과장이 있는 현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점검과 교육, 각종 서류작성 등의 업무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안전관리자의 일상임에도, 그는 조금의 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때문에 그가 있는 현장에선 운동회, 세족식, 근로자 음악회 등 연중 즐거운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회색빛 시멘트의 차가움과 날카롭게 솟은 철근의 냉기로 덮여 있는 건설현장에 따뜻한 온기와 활기찬 생기를 불어 넣었던 홍석하 SK 건설 HSE팀 과장을 만나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홍석하 SK건설 HSE팀 과장



차가운 건설현장에 온기를 불어넣다

홍 과장을 처음 만난 건 2013년 7월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건설현장이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다하여 점검이나 교육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볼까 하고 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장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굳은 표정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점검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신기하게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에서부터 운치 있는 색소폰 연주까지, 아름다운 선율이 삭막한 건설현장을 녹이고 있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녹초가 되어버린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와 휴식에 즐거움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어진 세족식에서는 현장소장부터 관리자 전원이 나와 근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다. 즐거움에 더해 감동의 세레모니가 이어지자 근로자들은 먹먹해 했다. 누가 이런 멋진 행사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쯤 확실하기를 들고 홀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행사를 조율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게 홍 과장과 그의 첫 만남이었다.

근로자가 행복한 환경 조성 위해 노력

처음 한 번은 그저 일회성의 이벤트일 것이라 생각했다. 한데 올해 5월 서울 월계동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 그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꼈으며, 즐거움을 주고 또 지켜주고 싶어 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점심식사



후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게실을 마련해 놓은 것은 물론 현장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화분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근로자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 간에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서로 안아주기', '안전모에 이름을 붙여주기' 등의 감성적인 행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어버이날에는 '상호존중 캠페인 및 품질 실천 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도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 인근에 위치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금연·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그에게 자기 일만으로도 힘든데 왜 이런 행사를 마련하느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참 뭉클하게 했다. "새벽부터 고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고생하는 근로자분들께 항상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시설물을 적기·적소에 설치하고,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함으로 현장 조율

홍 과장이 무조건 베풀고 근로자들에게 헤폰 웃음만 흘리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각종 행사와는 별개로 어느 현장을 가든 법적 기준을 뛰어넘는 빈틈없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린카드제를 통해 포상을 하는 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레드카드제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퇴출 조치했다. 또 모든 장비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만 작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즉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중한 안전관리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홍 과장은 이제 현장을 잠시 떠나 본사 HSE팀으로와 안전문화조성업무를 하고 있다. 안전문화조성업무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근로자를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는 그의 배려와 소통의 안전관리를 더욱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배운다면 늘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현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